

시아버지 폭행치사 94.6.30 패륜며느리 영장

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양로원에
가까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아버
지를 때려 숨지게 한 며느리 박경
화(34·인천시 남구 학익1동 영남

아파트 4동)씨에 대해 존속상해치
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경찰은 또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
때린 아들 이경철(36)씨를 존

속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.
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주
벽이 심하다며 양로원으로 보내려
다 이를 거부해온 시아버지 이관
규(62)씨가 지난 19일 오후 술에
취해 들어오자 이씨가 갖고 있던
지팡이를 빼앗아 때려 쓰러지자
발로 찔으며, 아들 이씨는 이날
며느리에게 맞아 쓰러진 아버지를
방안으로 끌고들어가 주먹으로 때
린 혐의다. 인천/김영환 기자